

폭염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농업·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120개 사업장 대상
-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및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 등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는 7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더운 여름철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 온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 및 건설업 분야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외국인팀)와 산업안전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지역협력과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산업안전부서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보건 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포·안내하고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

*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www.moel.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고용노동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윤혜영 (044-202-7755)
		담당자	사무관	이동희 (044-202-7739)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과 장	신욱균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박현건 (044-202-8891)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1. 3대 기본수칙 이행

실외 작업장		실내 작업장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물	
그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장소 근처에 그늘(휴식공간) 마련 그늘막은 바람이 통하는 장소에 설치 필요시 이동식에어컨 등 추가 설치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선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설치 및 주기적 환기 야간작업 시에도 실내온도 관리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휴식	

2.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실시

경고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5°C 이상**

-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위험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8°C 이상**

-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 재난·안전관리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공통 사항 ▶ 체감온도 **31°C 이상**

- 근로자 폭염정보 제공
- 시원한 물, 그늘(휴식공간), 바람 준비
-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고강도 작업자와 민감군 관리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 체감온도 **33°C 이상**

- 매시간 10분씩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QR코드로 체감온도 확인

3. 온열질환 발생시 조치

☞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119 구조요청** ☞ 긴급상황 발생 시 담당자 연락처: - -